

#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Predictors of Multi Cultural Compe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박근수, 신희정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eun-Soo Park(kspark@joongbu.ac.kr), Hee-Jung Shin(swg0403@joongbu.ac.kr)

###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역량과 관련 변수들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민정체성, 가치지향성, 문화적 민감성 정도에 따라 다문화 역량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단계마다 새로운 변수군을 투입하여 각 모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수들의 영향력, 유의미성, 모델 전체의 설명력 변화를 통하여 다문화 역량에 대한 국민정체성, 가치지향성,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다문화 역량 | 국민정체성 | 가치지향성 | 문화적 민감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ether national identity, value orientation, cultural sensitivity influence Multi cultural competence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significant result out of this research was that Multi cultural competence were different by its concerned variable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changes to each of the models were checked by introducing a new group of variables in each stage. Then the influences of the concerned variables including national identity, value orientation, and cultural sensitivity on multi cultural competence were tested through the influence and significance of the variables and the changing explanatory power of the entire models.

■ keyword : | Multi Cultural Competence | National Identity | Value Orientation | Cultural Sensitivity |

## 1. 서론

오늘날 ‘세계화’, ‘다문화’ 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다<sup>1)</sup>. 세계화가 자유무역의 확대와 국가경제의 통합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다<sup>1)</sup>. Giddens도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전 세계는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sup>2)</sup>. 즉, 세계화라는 사회현상에서 사회적 관계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본과 노동자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sup>2)</sup>

2011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인 1,395,07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75%를 차지하고 있다 [3].<sup>3)</sup>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2011년 현재 전체 혼인건수의 9%에 이르고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4].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노동력 증가, 외국국적 동포의 유입,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족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화-다문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입학거부,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5],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6]<sup>4)</sup> 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한편,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2006년 전체 이혼의 4.9%(6,136건)이던 것이, 2011년 10.1%(11,495건)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4]<sup>5)</sup>, 다문화 가족의 해체문제도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국내·외 상황에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다문화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류 집단들이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논의하고 있을 뿐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변화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요인들이 문화적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논의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양한 변수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변수로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 및 교육 변수만을 제한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영역별로 구성하여 특성을 기술하고, 각 변수에 따라 다문화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각 변수들과 다문화 역량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로써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청소년들은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 중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조선일보 2011년 10월 23일자 기사 <글로벌 포커스 - 지구촌 70억 명 시대 3대 키워드>를 보면, 현재 세계적인 키워드의 하나로 '이주의 시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조선일보 2011년 10월 23일자 기사 <글로벌 포커스 - 지구촌 70억 명 시대 3대 키워드>를 보면, 현재 세계적인 키워드의 하나로 '이주의 시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5%이상 타인종·타민족으로 구성되면 그 국가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정의된다.

4) 행정안전부의 2009년 외국인 주민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재학여부를 대조해 본 결과, 평균 27%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가 14%, 중학교가 16%, 고등학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8년 - 2009년에 실시한 이혼상담 통계를 분석해 보면, 국제결혼 이혼상담의 주요 사유는 폭력을 비롯하여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6월 10일자 EBS 교육초대석 내용 중)

## II. 문헌고찰

### 1.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이란 주류 문화와 차별성을 갖는 소수 집단의 독특한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동시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7]. 또한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에 내재해 있는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소수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 자체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는 문화적 강점 관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8]. 또한 임주용·오윤자의 연구[9]에서는 다문화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문화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다문화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역량과 유사하게 혼용되는 개념으로서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 수용성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박순희 외[10]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문화 역량과 문화적 민감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 민감성을 통하여 문화적 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논의함으로써 그 개념을 구별하여 논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문화적 민감성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선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다문화 역량의 한 구성요소로 논의하고[11][12], 이에 비해 다문화 역량은 이질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 가치, 신념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13].

Sue[14]는 이러한 다문화 역량을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세 가지 요소는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문화적 기술(Cultural Skill)이다. 문화적 인식은 자기 자신 및 타인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하여 알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세계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며, 문화적 기술은 각각 다른 문화 간 교류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능력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은 다문

화 역량의 필수 요소로서 강조되었다[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에 주목하였고, 다문화 역량을 자기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와 편견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 하였다.

### 2.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관련 연구동향

다문화 역량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시 주류문화와는 다른 소수문화 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복지 및 교육, 의료 영역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8][12][16][18][19]. 국내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20][21]. 하지만 다문화 역량은 서비스 영역의 전문가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복잡해지고 있고,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 국제적 관계를 이해하고, 국제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연구들 대부분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문화적 배타성 혹은 다문화 수용성 등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수용적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 수용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을 다룰 수 있도록 요구되는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22-24]. 일반인으로서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는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역량의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다문화 역량에 관련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3].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들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다문화 경험 및 학습요인을 논의하고 있다[18][25-29]. 이들 연구에서는 해외 자원봉사, 여행 등을 통한 외국인 접촉 경험과 다문화에 대한 학습경험이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로서 보편주의, 권력주의, 자기주도에 대한 지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할수록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에 대한 성향, 즉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임을 검증하고 있다[25][30-32]. 또한 시민권과 관련하여 국민정체성, 한민족정체성 등을 주요 변수로 논의하기도 하였는데[33-35], 국민정체성 중에서는 시민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이고, 한민족 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다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경험 및 교육 요인, 사회 및 정치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변수들도 제한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즉,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소수의 연구[9][36][37]를 보면,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변수로서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9][36] 혹은 교육적 경험[37] 등으로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역량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수들은 개인적 요인으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및 교육 요인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서 시민권과 같은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국민정체성 요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가치지향성 요인, 그리고 다문화 상황에 대한 반응성과 관련하여 문화적 민감성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문화 역량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조사 연구이다.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성별, 학교 급별로 2학년 남·여 고등학생에게 각각 125명씩, 2학년 남·여 중학생에게 각각 125명씩 모두 500명을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수집하였고, 이 중 부실 응답 설문지 제외하고 총 404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자가 199명(49.3%), 여자가 205명(50.7%)이었으며, 중학생(15세)이 204명(50.5%)이고, 고등학생(18세)이 200명(49.5%)이다. 종교는 기독교가 99(24.6%), 천주교가 24명(6.0%), 불교가 134명(33.3%)이었고, 기타가 146(36.2%)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성별(%)		종교(%)	
여	205(50.7)	18세	200(49.5)	기독교	99(24.6)
				천주교	24(6.0)
남	199(49.3)	15세	204(50.5)	불교	134(33.3)
				기타	146(36.2)
합계	404(100.0)	합계	404(100.0)	합계	404(100.0)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종속변수인 다문화 역량과 독립변수로서 국민정체성, 가치지향성, 문화적 민감성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선택하고,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으며[47], 신뢰도 분석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 2.1 다문화 역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성혜·이민영의 연구에서[38] 활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Cuevas가 개발한 문화적 인식 척도(cultural awareness scale)[39]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변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문화차이 인식(awareness of the difference in culture), 자기가치 인식(awareness of personal values, beliefs, and biases), 타인가치 인식(awareness of the values, beliefs, and biases of others)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국민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정미 외의 연구[33]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측정할 도구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종족적 요인(ethnic factors)과 시민적 요인(civic factors)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각 요인을 ‘귀속적 요건’과 ‘획득적 요건’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요건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 2.3 가치지향성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wartz[40]의 척도를 김혜숙[41]이 변안하여 요인 분석하고 선별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치지향 척도는 보편주의 지향이 6문항, 권력 지향이 3문항, 자기주도 지향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문화적 민감성

본 연구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ushner[42]의 문항을 토대로 최승희·김성희·임명희[43]가 개발한 문화적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문화적 통합태도, 문화적 지식습득, 문화적 기회균등, 문화적 독특성 수용, 언어사용 배려 등이 있으며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우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변인들의 수준에 따른 다문화 역량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관련 변인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경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외국인과의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88.9%였다.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6%로 해외방문 경험이 없다는 경우보다는 적었다. 한편 다문화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74.3%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은 연구대상자들이 중고등학생인 것을 감안한다면 영어 교과와 관련된 경험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영어권에 대한 제한된 경험은 대다수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외방문 등을 통한 실제적인 접촉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다문화 관련 과목에 대한 수강경험이 없어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였다.

이는 정경미[23]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었던 반면, 영미지향적 교육을 통해 오히려 편향된 문화 인식이 팽배해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다문화 관련 경험 (%)

다문화 관련 과목 수강경험		해외 방문경험		외국인과 대화경험	
없다	300(74.3)	없다	266(66.0)	없다	45(11.1)
있다	104(25.7)	있다	138(34.0)	있다	359(88.9)
합계	404(100.0)	합계	404(100.0)	합계	404(100.0)

국민 정체성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평균 4.31(5점 척도)로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4.18),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4.13), ‘한국 국적을 갖는 것’(4.03) 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하는 등의 귀속적 요건보다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갖는 것 등의 획득적 요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국민정체성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95	0.715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91	1.611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3.83	0.703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3.88	0.687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하는 것	4.18	0.718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4.13	0.730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4.00	0.725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4.31	0.727
한국 국적을 갖는 것	4.03	0.761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3.90	0.773

가치 지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자인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요소는 평균

4.34(5점 척도)로 ‘모두에게 기회 동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평균 4.24(5점 척도)로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과 ‘자연을 보존하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평등 및 정의, 환경보존과 같은 보편주의적 가치와 자기 주도적 성취에 대한 지향성이 높았다.

반면, 연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보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가 평균 3.78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 받음’이 평균 3.88(5점 척도)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군의 가치지향 요소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지향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 가치지향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보편주의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	4.34	0.700
	불의는 바로 잡고, 악자를 보살핌	4.22	0.694
	나와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3.89	0.736
	자연을 보존하기	4.24	0.740
	거짓 없고 진실함	4.14	0.749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	3.94	0.760
권력지향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3.89	0.764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받음	3.88	0.725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3.78	0.749
자기주도	행동과 사고의 자유	4.14	0.800
	목표를 달성하기	4.19	0.734
	자기 자신을 믿고 자족함	4.11	0.748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4.24	0.714

문화적 민감성 척도 중 문화적 통합 태도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보면, ‘국제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r)’가 평균 3.57(5점 척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에 의한 문화통합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자녀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2.96)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자체에 대하여 수용 하지만,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문화적 통합태도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이주자들 집단에 있으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r)	3.19	0.921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 결혼해야 한다(r)	3.23	1.050
이주자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r)	3.36	0.917
나의 자녀가 이주자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허락할 것이다(r)	2.96	1.044
이주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두렵다(r)	3.41	0.945
나는 일반적으로 이주자들과 만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r)	3.37	0.930
국제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r)	3.57	0.987

(r)은 역점수 항목

문화적 민감성 척도 중 문화적 지식습득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평균이 3.7점 이상으로 문화적 민감성 영역에서도 그 수용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다른 나라의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다’가 가장 높은 점수(3.94)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이주자들의 민족적 관습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다’, ‘나는 외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등으로 문화-예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 문화적 지식습득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나는 외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3.84	0.725
다양한 이주자들의 민족적 관습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다	3.85	1.624
외국인들과 만남이 내게는 흥미롭다	3.83	0.749
외국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은 내게 흥미롭다	3.79	0.733
나는 다른 나라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다	3.94	0.726
이주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3.63	0.711
나는 되도록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3.78	0.742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즐긴다	3.78	0.727
나는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3.64	0.727

문화적 민감성 척도 중 문화적 기회균등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보면, ‘나는 이주자들의 국가명절이나 축제를 존중 한다’가 3.83(5점 척도), ‘이주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제 중의 하나이다’가 3.80(5점 척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들

이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다른 문화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문화적 기회균등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나는 이주자들의 국가명절이나 축제를 존중한다	3.83	0.722
외국인들과의 토론은 유익하다	3.65	0.695
이주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제 중의 하나이다	3.80	0.739
이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못마땅하다(r)	3.61	0.968
이주자들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r)	3.53	0.970
이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순전히 자기 탓이다(r)	3.72	0.944
이주자들에게 취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r)	3.45	1.014
이주자를 위한 특별정책은 일반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r)	3.48	0.970
이주자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r)	3.26	0.997

(r)은 역점수 항목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수용도 대체로 평균이 높아 문화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다른 민족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표 8. 문화적 독특성 수용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이주자들은 자국의 전통 춤이나 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r)	3.88	1.008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가나 상징들이 새겨진 복장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r)	3.57	1.041
문화적,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의상을 입고 다니는 이주자들을 보면 거북하다(r)	3.39	1.003
외국인을 사귀면 내 고유한 문화를 상실할 것 같다(r)	3.68	0.921
인종/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85	0.763

(r)은 역점수 항목

한편, 자국 언어 사용 배려의 영역은 문화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용도가 낮은 영역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조건 중 언어사용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자국어언어 사용 장애에 대한 기술분석

내용	Mean	S.D
이주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어가 유창해야 한다(r)	2.89	0.915
이주자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유창해야 한다(r)	2.87	0.901
이주자들이 입학 전에 한국어가 유창해야 한다(r)	3.07	0.851
이주자들이 취업하려면 한국어가 유창해야 한다(r)	2.86	0.893
이주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언어, 관습, 가치 등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77	0.743

(r)은 역접수 항목

## 2. 관련변인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분석

다양한 변인에 따른 다문화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변인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관련 변인들에 따른 다문화 역량 차이

내용		N	Mean	S.D	t
귀속적 조건***	저	178	43.81	4.86	-4.05
	고	226	45.93	5.47	
획득적 조건***	저	219	43.77	4.82	-5.214
	고	185	46.45	5.51	
가치 지향***	저	202	43.48	4.78	-5.989
	고	202	46.51	5.39	
문화적 민감성***	저	222	43.59	5.08	-6.128
	고	182	46.71	5.09	

\* $\leq 0.05$ , \*\* $\leq 0.01$ , \*\*\* $\leq 0.001$

우선, 국민 정체성 정도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를 보면, 귀속 및 획득적 조건을 포함한 국민 정체성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역량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높은 집단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조건, 그 중에서도 획득적 조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치지향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를 보면, 가치지향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역량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인태정 [25]의 연구에서는 가치 지향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문화적 민감성 정도에 따른 다문화 역량 차이를 보면, 문화적 민감성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문화 역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높은 집단이 다른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뚜렷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회귀분석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국민 정체성 인식, 가치 지향성, 대인관계기술, 문화적 민감성 등의 5가지 군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다문화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에 순차적으로 포함시키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변수군을 투입하여 각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수들의 영향력, 유의미성, 모델 전체의 설명력의 변화를 통하여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향을 제시하였다. 1단계 모형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변수인 나이, 성별, 다문화 경험 등에 대한 영향력이고, 2단계 모형은 1단계 모형에 귀속요인 및 획득요인으로 구성된 국민 정체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3단계는 2단계 모형에 보편주의, 권력 지향, 자기주도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가치지향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4단계는 3단계에 통합적 태도, 지식 습득, 기회균등, 독특성 수용, 언어사용배려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문화적 민감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단계가 상승할 때마다 전단계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 후 새롭게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 단계의 공차한계와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M5의 공선성 통계량을 제시하였다<sup>6)</sup>. 4단계 모형의 위계적 다

6) Kutner, Nachtsheim, Neter에 따르면 VIF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고 있다[44].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1	M2	M3	M4	VIF
나이 성별더미 다문화경험	0.264***	0.247***	0.219***	0.131**	1.161
	-0.008	0.004	0.001	-0.038	1.110
	0.045	0.44	0.034	0.016	1.044
귀속요인		0.136**	0.121**	0.103*	1.141
획득요인		0.266***	0.127*	0.063	1.539
보편주의 권력지향 자기주도			0.010	-0.001	1.996
			0.112*	0.097*	1.400
			0.213***	0.124*	2.150
통합적태도				-0.180**	1.737
지식습득				0.299***	1.566
기회균등				0.130*	2.610
독특성수용				0.098	2.333
자국어언어배려				-0.062	1.275
R <sup>2</sup>	0.071	0.183	0.243	0.365	
F	10.151***	27.244***	10.514***	14.929***	

\*.05, \*\*.01, \*\*\*.001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역량을 설명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151, p<.001), 전체 다문화 역량의 7.1%를 설명하였다. 또한 변수 중에서는 나이 변수(β=0.26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모형에 국민 정체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킨 2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27.244, p<.001), 전체 다문화 역량의 18.3%를 설명하였다. 즉, 1단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새롭게 투입된 국민 정체성, 특히 획득적 요인의 특성을 통하여 다문화 역량 변량 중 약 11.2%를 유의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단계의 모형에서 새롭게 투입된 변수들, 즉 귀속적 국민 정체성(β=0.136, p<.01)과 획득적 국민 정체성(β=0.26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획득적 국민 정체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인식할수록 다문화 역량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 모형에 가치지향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문화 역량을 설명하는 3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0.514, p<.001), 전체 다문화 역량의 변량 중 약 24.3%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앞 단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새롭게 투입된 가치 지향성에 대한 특성을 통하여 6.0%를 유의미하게 추가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단계 모형에 새롭게 투입된 가치지향성 변수 중, 권력지향(β=0.112, p<.05)과 자기주도 가치지향(β=0.213, p<.001)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 역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나이 변수(β=0.219, p<.001)와 귀속적 요인(β=0.121, p<.01) 및 획득적 요인(β=0.127, p<.05)은 3단계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국민정체성뿐 아니라 권력지향 가치와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14.929, p<.001), 전체 다문화 역량의 변량 중 약 36.5%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4단계 모형은 앞 단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새롭게 투입된 문화적 민감성 요인들을 통하여 12.2%를 유의미하게 추가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4단계 모형에 새롭게 투입된 문화적 민감성 변수 중, 통합적 태도(β=-0.180, p<.01)와 지식 습득(β=0.299, p<.001), 기회 균등(β=0.130, p<.05) 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 역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前)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나이(β=0.131, p<.01), 귀속(β=0.103, p<.05), 권력지향(β=0.097, p<.05), 자기주도지향(β=0.124, p<.05) 변수들은 4단계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문화적 민감성, 특히 통합적 태도 및 지식 습득, 기회균등 요인 뿐 아니라 나이, 귀속적 국민정체성, 권력적 가치지향, 자기주도 가치지향 등의 변수들도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식습득 관련 문화적 민감성 변수는 다문화 역량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다문화 역량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관련 변인들의 기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국민 정체성으로 귀속적 요건보다는 획득적 요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향하는 가치의 특성을 보면, 대체로 보편주의와 자기주도에 대한 지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권력에 대한 가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민감성의 특성을 보면, 문화적 통합에 대한 태도에서 국제결혼 자체에 대하여 수용 하지만,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화적 통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지식습득의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로서의 문화적 수용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 기회균등의 측면의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우리사회가 다른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적 독특성의 측면에서도 대체로 다른 민족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비교적 적었다. 반면, 자국 언어 사용 배려에 관해서는 문화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역량 차이를 보면, 국민정체성(귀속적 요건 및 획득적 요건), 가지지향 정도, 문화적 민감성에 따른 다문화 역량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4단계의 위계적 다중회귀 모형을 검증하여 단계 상승에 따른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각 단계별로 새로운 변수가 투입됨에 따라 다문화 역량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적 민감성 변수 중, 통합적 태도와 지식 습득, 기회균등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에도 다문화 역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 3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국민 정체성의 귀속적 조건, 권력지향, 자기주도 지향 등의 변수는 계속해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민 정체성의 조건, 특히 귀속적 조건, 그리고 권력주의 및 자기주도 가치지향, 문화적 통합, 지식습득, 기회균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요인이 연구대상자들의 다문화 역량에 선행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 2. 논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부산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인 인정조건’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획득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부처들에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세계화·다문화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접근은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영미권 편향적인 문화접촉으로 다양한 문화에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는데[45], 2012년 3월 12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를 통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공교육 기관이 다문화 역량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일반학생과 학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 가치를 초월한 평등과 정의 등의 보편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 등은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5][37][46].

또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문화를 습득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가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교육만 받아온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수업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등을 통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과의 공동과제 수행, 지역사회와의 다문화 가족과의 만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가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청소년에게 어떠한 준비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부산에 국한되어 있고, 유의 표집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 역량의 여러 차원 중 지식과 가치의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일반적인 대상에게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제언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및 체험 등에 대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최현미, 이혜경, 신은주, 최승희, 김연희, 송성실,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2010.
- [2] A. Giddens, "A Changing World," In: Giddens, S *ociology* 4th edition, Bristol: Polity Press. 2003.
-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2
- [4]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5] 김홍운, 김두정,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29권, 제2호, pp.41-64, 2008.
- [6] 이재분,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방안",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 포럼 자료집*, pp.21-36, 2011.
- [7] J. R. Betancout, A. R. Green, J. E. Carrillo, and O. Ananeh-Fierempong, "Defining Cultural Competence: A Practical Framework for Addressing Racial/Ethnic Disparities in Health and Health Care," *Public Health Reports*, Vol.118, No.4, pp.293-302. 2003.
- [8] D. Lum, "The Four Skills of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A Proces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e, second edition, by Mikel Hogan-Garcia,"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Vol.13, No.1, p.109, 2004.
- [9] 임주용, 오윤자,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대한가정학회*, 제48권, 제10호, pp.143-157, 2010.
- [10] 박순희, 이주희, 김은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6호, pp.123-145, 2011.
- [11] Y. S. Kim-Godwin, P. Clarke, and L. Barton, "A model for the delivery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ty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5, No.6, pp.918-925, 2001.
- [12] J. Capell, G. Veenstra, and E. Deanr,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ruct, It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 Testing, Vol.11, No.1, pp.30-36, 2007.
- [13] 김민경,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6호, pp.945-965, 2010.
- [14] D. W. Sue, Multidimensional Facets of Cultural Compet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9, pp.790 -821, 2001.
- [15] K. M. Sowers-Hong and P. Sandau-Beckler, “Educating For Cultural Competence In The Generalist Curriculum,”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Vol.4, No.3, pp.37-56, 1996.
- [16] H. N. Weaver, “Indigenous People in a Multicultural Society : Unique Issues for Human Services,” Social Work, Vol.43, No.3, pp.203-211, 1998.
- [18] M. S. Cronin,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Yeshiva University. 2005
- [19] P. K. Zander, “Cultural Competence : Analyzing The Construct,” The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 Testing, Vol.11, No.2, pp.50-54, 2007.
- [20] 최연선, 최혜지, 최원희, “사회복지실천 인력의 문화적 유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42-247, 2008.
- [21] 민선영,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제1권, pp.1-28, 2008.
- [22] 김희자,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제9권, 제1호, pp.255-282, 2008.
- [23] 정미경, *주한 외국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2008.
- [24] 서종남,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을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pp.83-110, 2012.
- [25] 인태경,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pp.339-370, 2009.
- [26] 김정화, 박신혜, 조상미,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 의식과 문화다양성 태도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호, pp.183-210, 2010.
- [27] 박혜숙, 원미순,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2호, pp. 303-325, 2010.
- [28] 송미영, “다문화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제41권, pp.74-97, 2010.
- [29]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pp.305-330, 2011.
- [30] W.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Oxford : Clarendon on Press. 1995.
- [31] 윤상우, 김상돈,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1호, pp.91-117, 2010.
- [32] 임도경, 김창숙,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9권, 제1호, pp.5-34, 2011.
- [33]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19-02, 한국어정정책연구원, 2007.
- [34] 양계민, “국내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2호, pp.59-79, 2009.
- [35] 김경은, 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 교육, 제51권, 제1호, pp.123-140, 2012
- [36] 김옥순, “청소년의 문화간 역량 연구: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문화지능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151-172, 2010.
- [37] 김다원,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논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및 교육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77-492, 2011
- [38] 민성혜, 이민영,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183-210, 2009.

- [39] M. C. Cuevas,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of Social Work Student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2.
- [40] S.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x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5, pp.1-65, 1992.
- [41]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4호, pp.91-104, 2007.
- [42] K. H. Cushner, *The Use of a Culture-General Assimilator in the Orientation of Adolescent Exchange Students living in New Zealand*, 1987.
- [43] 최승희, 김성희, 임명희, *문화적 민감성 척도개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연구보고서, 2008.
- [44] Kutner, Nachtsheim, Neter,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4th edition, McGraw-Hill Irwin. 2004.
- [45] 이윤정, "다문화가족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pp.370-378, 2010.
- [46] 황갑진,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pp.151-167, 2011.
- [47] 김길현, 하규수,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256-271, 2012.

저 자 소개

박 근 수(Kuen-Soo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연세대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 1997년 2월 : 동국대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2008년 2월 : 대전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및 다문화가족복지

신 희 정(Hee-Jung Shin)

정회원



- 1998년 2월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한남대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 및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